

보도 일시	2023. 3. 7.(화) 14:00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5-3981)
	공기업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전형구 (044-205-3991)

지방공공기관 부채, 불요불급한 자산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 추진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적극 추진 -

- 행정안전부는 3월 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및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22년 9월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무건정성 분야 3대 과제과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다.
 - ※ 혁신가이드라인 : 구조개혁 분야 2개*, 재무건정성 분야 3개** 등 5개 혁신과제 추진
 - * ①유사중복 기능 조정 ②민간 경합사업 정비 / ** ①재무부채 중점관리 ②자산건전화 ③복리후생 정비
- 이번 재무·부채 관리계획,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 복리후생 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부채 관리계획 】

-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운영하고 있다.
- 2021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사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5회계연도)을 작성하여 매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부채중점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제출한 재무부채관리계획('22~'26년)에 따르면 2026년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 지속과 노후시설 개선 투자 등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관의 사업종료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시기 조정 권고, 공사채 신규발행 최소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 】

-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총 6천628억 원에 상당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
- 먼저, 강원개발공사 등 48개 기관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매각 등을 통해 668건 6천393억 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정비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지방공사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 달성이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개 출자회사 지분 235억 원도 정비하여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하여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 면적 축소 등을 통해 자체청사는 신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 복리후생 정비 계획 】

- 복리후생 정비는 35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 주요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보육비 지원을 폐지한다.
 - 또한,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내 및 해외연수비 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 이러한 정비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으로 복리후생비가 2021년 대비 4.1%(146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계획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자산건전화 정비) ~'27년, (복리후생제도 정비) ~'24년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채중점관리기관

구분	개 수	기관명
지방공사	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4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 (도시개발: 16개)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 (기타공사: 9개)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경기교통공사, 용인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단양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출자기관	42개	<p>아시아드cc, 인천종합에너지, 안산도시개발(주), 시흥대화 산단개발(주), 파주디엠지곤돌라(주), 의정부리듬시티(주),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안성테크노밸리, (주)강원심층수, 태백가덕산 풍력발전(주), (주)영월에너지 스테이션, 강원중도개발공사, 남춘천산업 단지개발(주),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 청주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성분산업단지(주), 음성용산 일반산업단지(주), 괴산대제 산업단지(주), 천안북부일반 산업단지(주), 남공주산업 단지개발(주), (주)아산하이 테크밸리, 농업회사법인 (주)동부팜,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완주테크노밸리(주), 완주농공 단지개발(주), 목포대양산단(주), 담양대숲마루(주), 담양그린개발(주),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 (주)탑글로리, 1004섬요트관광(주), 경북통상(주),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주), 창원자족형복합 행정타운개발(주), 마산해양신도시(주), 진주뿌리 산단개발(주), 사천아이씨 도시개발(주), 김해대동첨단 산업단지(주),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영남일반 산업단지(주),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p>
출연기관	76개	<p>서울의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복지재단, 송파문화재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북구청소년육성재단, 인천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관광재단,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재)수원에프씨, 수원문화재단, 수원도시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재)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평택시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재)군포문화재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재)구리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강원도일자리재단,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횡성문화재단, (재)영월산업진흥원,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충주중원문화재단, (재)제천문화재단,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아산문화재단,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재)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진안군의료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강진의료원, (재)목포수산물유통센터,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울진군의료원,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창원문화재단,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거창문화재단,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p>